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eeding in Academic Library Collection

김 미 혜(Mi-Hye Kim)*
리 상 용(Sang-Yong Lee)**

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장서폐기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외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지침과 장서폐기사례를 살펴보고, 장서폐기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서폐기 운영현황과 지침현황을 알아본 후에 이들 내용을 토대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학도서관 장서폐기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proposing an improvement for effective disposal in academic libraries.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literature, case stud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selected the five foreign cases on academic libraries that open to the public regarding their disposal guidelines or operation cases on their Website.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e of disposal and needs for improvement in Korea,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libraries of Korean universiti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 for an effective disposal in academic libraries.

키워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장서관리, 장서폐기, 장서폐기지침
Academ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Management, Weeding, Weeding Policy

---

*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mh-0701@hanmail.net)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yly@ewha.ac.kr)
논문접수일자 : 2011년 5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11년 6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6월 16일

www.kci.go.kr

1. 서 론

현재 많은 대학도서관은 증가하는 장서로 인해 공간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낡고 훼손된 장서들이 증가하고, 장서에 수록된 정보가 개정됨에 따라 그 자료의 이용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적절히 폐기하여 도서관 공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외 대학도서관에서는 정기적인 장서폐기를 통하여 도서관의 공간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매체와 해당 주제 분야의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내·외부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장서폐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대학도서관별로 자관의 장서유형과 교육환경을 반영한 폐기지침을 개발하여 업무에 참고하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도 점차 장서폐기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도서관에서 장서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양질의 장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파손 자료 또는 소재불명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형식적인 업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장서 유형과 주제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극적인 폐기를 통해서는 도서관 공간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장서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학도서관 장서폐기에 관한 연구로는 윤희윤(1989), 류인석(1997), 임현(2001), 권기백(2007) 등의 것이 있다. 윤희윤(1989)은 대학도서관의 폐기지침과 기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류인석(1997)과 임현(2001)은 자료폐기의 기준을 정리하고 그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권기백(2007)은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 분야별 자료폐기의 문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주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도서관의 장서폐기에 관한 실질적인 운영과 지침에 관해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국외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사례와 현황조사를 통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대학도서관 장서폐기지침의 필요성 및 요소

2.1 대학도서관 장서폐기지침의 필요성

ACRL의 2004년『고등교육을 위한 도서관 표준(Standards for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에 의하면, 대학도서관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양질의 자원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합리적인 장서 폐기가 장서의 최신성과 중요성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장서가 대학의 커리큘럼과 연구목적을 반영하는지, 여러 유형의 장서를 평가하기 위한 질적·양적인 평가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합리적인 폐기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서의 최신성과 특성을 유지하고

www.kci.go.kr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의 연구 활동 역시 그 주제 분야가 세분화되고 학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자별로 요구 사항과 관심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장서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장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장서폐기는 도서관 장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측면에서 분야별 핵심장서 및 최신성을 유지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서가공간의 확보, 자료의 균형적인 재배치 등 다양한 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는 업무의 과중과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장서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대학도서관 통계분석집』에 따르면 4년제 대학도서관의 연간 폐기 책 수는 총 496,166책이며, 이를 조사대상 대학도서관수로 환산한 1개관 당 연간 평균 도서 폐기량은 1,844책이다. 대학의 규모별 연간 폐기 책 수는 대규모 대학은 327,053책, 중규모 대학은 130,601책, 소규모 대학은 38,512책으로,[1] 전반적으로 대학의 규모가 큰 대학도서관일수록 도서 폐기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별 대학의 폐기 책 수를 살펴보면 상위 20위권 대학도서관의 폐기 책 수는 443,080책으로 전체 4년제 대학도서관 연간 폐기 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하위 20위권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연간 1건의 책도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도서관 간의 자료폐기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도서관법(2007)과 한국도서관기준(2003)에서 장서폐기에 관한 국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2] 거기에서 제시하는 폐기자료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인 선정 근거와 폐기의 범위를 규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실무에서 적용하기 힘들다.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도 자관의 장서개발정책을 통하여 폐기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제적처리나 소재 불분명자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어

〈표 1〉 연간 폐기책수 상·하위 20위권 도서관

구분	국내서	국외서	전체	
			책수	평균
전체	422,264	73,902	496,166	1,844
상위 20위권	378,330	64,750	443,080	22,154
하위 20위권	0	0	0	0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2010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40.

1) 대학의 규모별로 구분한 1개관 당 평균 폐기 책수는 대규모 대학이 5,032책, 중규모 대학이 1,921책, 소규모 대학이 283책이다.

2) 도서관법(2007) 시행령 제5조 제4호의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따르면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으로 이용가치의 상실, 훼손 또는 파손·오손,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2003)에 의하면 대학도서관은 연간 당해 도서관의 전체자료의 3% 이내에서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대상자료는 이용도가 낮은 복본, 이용가치의 상실, 훼손 또는 오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망실된 경우로 한정한다.

www.kci.go.kr

양질의 장서관리를 위한 활발한 장서폐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합리적인 장서폐기를 위하여 대학의 특징과 장서유형을 고려한 장서폐기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2.2 대학도서관 장서폐기지침의 요소

장서폐기정책과 관련하여 정책구성요소를 제시한 Reed-Scott(1985), 윤희윤(1989), Baumbach와 Miller(2006), 권기백(2007) 등 여러 학자들이 장서폐기는 도서관 장서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관의 특징을 반영한 성문화된 폐기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학자들이 성문화된 장서폐기지침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으로 제시한 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장서폐기지침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장서폐기의 목적, 시기, 범위, 기준, 절차, 처리 결재권 등 여러 요소가 논의되었다. 이 중에서도 폐기자료 선정기준은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의 목표와 교육프로그램이 다르고, 장서의 질적 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폐기자료 선정기준에 대해 McGraw(1956), Martin과 Manch(1971), Stueart(1985), Reed와 Erickson(1993), Disher(2007), Dubicki(2008) 등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기준을 자료의 물리적 상태, 자료의 내용, 자료의 이용, 기타 요소 등의 네 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2〉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지침 구성요소

구성요소	Reed-Scott (1985)	윤희윤 (1989)	Baumbach와 Miller (2006)	권기백 (2007)
목적	○	○	○	○
시기	○	-	○	-
범위	-	○	○	○
기준	○	○	○	○
절차	○	○	○	○
처리	○	○	○	○
결재권	-	-	-	○

〈표 3〉 폐기자료 선정기준

부 문		A	B	C	D	E	F
물리적 상태	파・오손자료	○	○	○	○	○	○
	망실・소재불분명자료	○	○	○	-	-	○
	대체성	-	-	○	-	-	-
	복본	○	○	○	○	○	○
내용	정보의 정확성	-	-	○	-	○	-
	최신성	○	○	○	-	-	○
	개정・판이 바뀐 자료	○	○	○	-	○	○

www.kci.go.kr

부 문		A	B	C	D	E	F
내용	출판년도	-	○	○	○	○	○
	현 장서와의 관련·적합성	○	○	-	○	○	○
	커리큘럼·연구경향과의 연관성	○	○	○	-	○	○
	언어	-	-	○	-	-	-
	출판사·저자의 신뢰도	-	-	-	-	-	○
	대학관련자료	-	○	-	○	-	○
이용	대출기록·이용통계	○	○	○	○	○	○
	상호대차의 이용가능성	-	○	○	-	-	-
기타	기증자료	○	-	-	-	-	-
	주요 출판목록	-	-	-	○	-	-
	전문가의 판단	○	-	○	○	-	-

A: McGraw(1956) B: Martin과 Manch(1971) C: Stueart(1985)
D: Reed와 Erickson(1993) E: Disher(2007) F: Dubicki(2008)

3. 대학도서관 장서폐기지침 사례분석 및 현황조사

3.1 국외 대학도서관 사례분석

여기에서는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2009년 장서 수 상위도서관 목록(The Nation's Largest Libraries: A Listing By Volumes Held)에 나타난 상위 50개관 중에서 대학도서관(Academic Library)으로 밝힌 36개관을 선정하고, 이들 도서관 가운데 장서폐기지침 및 폐기운영사례를 웹 사이트에 공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미시건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ersity), 럿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 등 5개 대학도서관을 그 대상으로 하여 사례조사를 하였다.

먼저 이들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사례를 폐기지침과 운영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다음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대학에서는 도서관내의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장서폐기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소개하고, 폐기업무의 참여 인력, 폐기자료의 선정기준, 처리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폐기업무의 참여에 있어서도 장서폐기업무를 담당하는 사서가 지정되었으며, 보존담당사서, 대출담당사서, 주제전문사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서들이 함께 참여하여 폐기업무를 진행하였다. 각 분야의 교내 교수진과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폐기자료를 선정하였다. 특히 폐기자료의 선정기준은 도서관 별로 자관의 특징을 반영하고 교육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으며, 단행본을 비롯한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장서유형에 대해 폐기자료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요소를 제시하였다. 폐기자료의 처리에 있어서도 파기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

www.kci.go.kr

〈표 4〉 국외 대학도서관 장서폐기 사례분석 정리

도서관명	내 용	
일리노이대학교 도서관	지침	• 디지털시대의 장서유지에 관한 지침(Retention Policies in the Digital Age) • 복본이 없는 연속간행물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Cancellation of Unique Serials)
	운영	• 폐기담당사서, 대출담당사서, 보존담당사서, 주제전문사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서와 교내 교수진의 폐기업무 참여, 타 대학도서관의 의견 반영 • 일반적인 폐기자료 선정기준과 전자저널을 포함한 연속간행물의 폐기자료 선정기준 • 자료의 입수금액, 예측되는 현재의 가치, 입수 날짜, 입수형태 등을 고려하여 교환, 이관, 재활용 및 파기 등으로 폐기자료 처리
미시건대학교 도서관	지침	• 장서의 폐기 및 유지에 관한 지침(Retentions and Withdrawals: Guidelines for University Library)
	운영	• 장서관리사서와 보존담당사서, 각 주제 분야의 사서 및 전문가의 참여 • 일반적인 폐기자료 선정기준과 연속간행물에 대한 폐기자료 선정기준 • 타 도서관이나 비영리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기증과 교환, 도서관 행사 혹은 폐기전문기관, 딜러를 통한 판매과정으로 폐기자료 처리
코넬대학교 도서관	지침	• 서가공간조정을 위한 자료선정지침(Selection Policy for Shelf Space Adjustment) • 연속간행물 구독취소 및 폐기에 관한 지침(Serials Cancellation and Withdrawal Policy) • 폐기자료의 처리에 관한 지침(CUL Policy on the Disposition of Library Material)
	운영	• 장서폐기 담당사서, 주제전문사서, 학문주제의 전문가 및 이용자의 참여 • 폐기선정기준으로 출판일, 대출기록, 언어, 자료형태, 주제분야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주제전문사서와 교수의 의견 반영, 연속간행물 자료의 경우 이용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폐기자료 결정 • 대학의 커뮤니티, 딜러 또는 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판매, TCPL(Tompkins County Public Library) 북세일 행사, 교환과 기증을 통한 폐기자료 처리 • 선정된 폐기대상자료는 일정정보를 첨부하여 도서관에서 공지하여 이용자의 의견 수용 후 최종 폐기자료 확정
인디애나대학교 도서관	지침	• 도서관 장서의 유지, 이관, 폐기에 관한 지침(Retention, Transfer & Withdrawal Policy)
	운영	• 장서관리사서, 주제전문사서 및 주제전문가의 참여 • 도서관내 부서, 대학교내 타 부서, 타 도서관간의 협력과 참여 • 일반적인 폐기선정 기준과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학위논문, 교과서 등의 자료유형에 관한 폐기선정요소 마련 • 타기관과의 교환, 기증, 판매 등의 방법으로 폐기자료 처리
럿거스대학교 도서관	지침	• 장서폐기 프로젝트 절차(Weeding Project Procedure) • 폐기자료 처리 지침(Rutgers Disposal Policy)
	운영	• 장서폐기담당사서, 주제전문사서, 수서담당사서, 보존담당사서 등의 참여 • 일반적인 폐기자료 선정기준과 자료형태별 폐기기준 제시 • 전자자료에 관한 평가기준 제시 • 교환, 기증, 판매, 파기 등의 방법으로 폐기자료 처리

닌 이용자와 커뮤니티의 참여와 도서관이나 기관과의 협력체재를 통한 기증, 교환, 판매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시행되었다.

다음으로 국외 대학도서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폐기자료 선정기준의 세부요소를 물리적 상태, 내용, 이용, 기타 요소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이들 국외 대학도서관에서 폐기자료 선정 기

www.kci.go.kr

준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요소는 파오손 자료, 복본 및 중복 여부, 자료의 최신성, 현 장서와의 관련 및 적합성, 커리큘럼 및 연구경향과의 연관성, 대출기록 및 이용통계, 상호대차의 이용가능성, 전문가의 판단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유형별 폐기기준은 일반적인 폐기기준과 함께 국외 대학도서관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많이 개발된 자료유형인 전자자료와 연속간행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 6〉 참조).

전자 자료의 경우, 폐기자료 선정기준으로 '자료의 안정성'과 '영구적인 접근 및 보존'이 가장 많이 채택되었으며, '인터페이스의 사용용이성', '구독형태에 따른 비용차이'에 대한 요소도 중시되었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폐기자료 선정기준으로 '학제적인 연구 및 학술커뮤니케이션 지원',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에 대한 구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 요소로 채택되었다.

〈표 5〉 국외 대학도서관의 일반적인 폐기자료 선정기준

구성요소		일리노이 대학교 도서관	미시건 대학교 도서관	코넬 대학교 도서관	인디애나 대학교 도서관	럿거스 대학교 도서관
물리적 상태	파·오손자료	○	○	○	○	○
	망실·소재불분명자료	○	○	○	-	○
	완전성	○	○	-	○	-
	대체성	○	○	○	○	-
	복본 및 중복 여부	○	○	○	○	○
내용	내용의 범위·깊이	○	○	-	○	○
	정보의 정확성	-	○	-	-	-
	최신성	○	○	○	○	○
	개정·판이 바뀐 자료	○	○	-	○	○
	출판년도	-	-	○	○	-
	현 장서와의 관련·적합성	○	○	○	○	○
	커리큘럼·연구경향과의 연관성	○	○	○	○	○
	언어	○	-	○	○	-
	출판사·저자의 신뢰도	-	-	○	-	-
	대학관련자료	○	○	-	○	-
이용	대출기록·이용통계	○	○	○	○	○
	미래의 예측가능한 이용	○	○	-	○	-
	인용패턴·영향력지수	-	-	-	○	-
	학과·이용자의 규모	○	○	○	-	○
	이용자의 의견	○	-	○	-	○
	상호대차의 이용가능성	○	○	○	○	○
기타	주요 출판목록	-	○	○	○	-
	전문가의 판단	○	○	○	○	○

www.kci.go.kr

〈표 6〉 국외 대학도서관의 자료유형별 폐기자료 선정기준

구성요소		일리노이 대학교 도서관	미시건 대학교 도서관	코넬대학교 도서관	인디애나 대학교 도서관	럿거스 대학교 도서관
전자 자료	업데이트 빈도	○	-	○	-	○
	자료의 안정성	○	○	○	○	○
	지원하는 파일형태	○	○	-	○	○
	영구적인 접근·보존	○	○	○	○	○
	인터페이스 사용용이성	○	○	-	○	○
	지원하는 검색	○	-	-	-	○
	색인의 종류	-	-	-	-	○
	구독형태에 따른 비용차이	○	○	○	-	○
	출판사·에이전시의 신뢰도	○	○	-	-	○
	기술지원	○	-	○	-	○
연속 간행물	학제적 연구 및 학술커뮤니케이션지원	○	○	○	○	○
	자료별 구분	-	○	-	-	○
	인쇄·전자자료의 구분	○	○	○	○	○
	인용데이터·영향력지수	○	-	-	-	○
	예산과 구독비용	○	○	-	-	○
	다른형태와 가격비교	○	-	○	-	○
	구독기간	-	-	-	○	-
	결호·부분적 망실자료	○	-	○	○	-
	폐간·중단·변경된 자료	○	-	-	-	-
	색인과 초록 제공여부	-	-	○	○	○
	원문복사·원문이용가능성	○	-	-	-	○
	출판사의 신뢰도	○	○	-	-	○

3.2 국내 대학도서관 현황분석

국내 대학도서관 장서폐기의 현황파악과 개선에 관한 요구조사를 위하여 장서폐기 담당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보충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학도서관 통계자료(2008, 2009)의 연간 폐기권수를 참고하여, 최근 2년 동안 연간 110권 이상의 장서를 폐기한 경험이 있는 국내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학도서관 49개관의 장서폐기 또는 장서관리 담당사서를 대상으로 '장서폐기 운영현황', '장서폐기 지침현황', '장서폐기 인식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49개 대학도서관 중에서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도서관과 응답이 미흡하여 분석할 수 없는 도서관 17개관을 제외한 32개관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최근에 폐기를 실시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황분석은 도서관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황분석은 전체적인 현황과 함께 해당 대학도서관의 전체 장서 수에 대한 폐기자료 수에 대한 비율을

www.kci.go.kr

나타내는 폐기율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폐기율은 한국도서관기준(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간 폐기율인 3%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사서와 소속도서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표 7〉 응답 사서 및 소속도서관 현황

(단위: 명(%))

부 문		세 부 사 항	응답수(명)	백분율(%)
도서관	대학설립형태	국공립	4	12.5
		사립	28	87.5
		계	32	100.0
	장서수	50만권 미만	13	40.6
		50만권 이상 - 70만권 미만	5	15.6
		70만권 이상 - 100만권 미만	3	9.4
		100만권 이상 - 150만권 미만	6	18.8
		150만권 이상	5	15.6
		계	32	100.0
	최근 2년간 폐기자료수	110권 이상 - 1,000권 미만	7	21.9
		1,000권 이상 - 5,000권 미만	7	21.9
		5,000권 이상 - 10,000권 미만	5	15.6
		10,000권 이상 - 50,000권 미만	9	28.1
		50,000권 이상 - 100,000권 미만	2	6.3
		100,000권 이상	2	6.3
		계	32	100.0
	연간폐기율	3% 미만	29	90.6
		3% 이상	3	9.4
			32	100.0
사서	소속부서	학술정보운영·지원	19	59.4
		수서	3	9.4
		열람	4	12.5
		대출실	2	6.3
		기타	4	12.5
		계	32	100.0
	폐기업무 담당기간	2년 미만	8	25.0
		2년 이상 - 5년 미만	11	34.4
		5년 이상 - 8년 미만	4	12.5
		8년 이상	9	28.1
		계	32	100.0
	폐기시행횟수	1회	10	31.3
		2회 - 4회	12	37.5
		5회 - 7회	7	21.9
		8회 이상	3	9.4
		계	32	100.0

www.kci.go.kr

3.2.1 장서폐기 운영현황

전체 32개 대학도서관 중에서 장서폐기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은 15개관(46.9%)이었고, 나머지 도서관은 정기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모든 대학도서관에서 장서폐기를 시행하는 이유로 서가공간의 확보를 꼽았으며, 이 외에도 장서의 질 관리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서폐기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장서폐기의 시행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자료형태 별로 폐기를 시행하거나, 전체 장서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폐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제분야별로 폐기를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은 적게 나타났다(〈표 8〉 참조).

장서폐기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을 보면, 28개관이 장서폐기 담당사서를 지정하여 참여하고 있었고 폐기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기업무를 진행하는 도서관도 13개관에 달했다. 그러나 주제전문사서나 장서보존사서, 교수・이용자의 참여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9〉 참조).

장서폐기업무를 진행할 때 참고하는 정보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자료의 이용에 관련한 정보를 참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용에 관련한 정보로 최종 대출일을 참고하는 경우보다 과거의 대출 및 이용기록을 참고하는 도서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폐기자료유형을 조사한 결과, 폐기 경험이 있는 자료유형으로는 단행본이 32개관이었고, 연속간행물과 참고자료가 23개관, 학위논문이 16개관, 시청각자료가 9개관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8〉 장서폐기의 시행형태*

(단위: 명(%))

부 문		응답수(백분율)			
		전체장서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 폐기시행	자료형태별 폐기시행	주제분야별 폐기시행	계(1개관당)
폐기율	3% 이상	3(100.0)	3(100.0)	1(33.3)	7(2.3)
	3% 미만	19(65.5)	20(69.0)	9(31.0)	21(1.7)
계		22(68.8)	23(71.9)	10(31.3)	55(1.7)

*복수응답임.

〈표 9〉 장서폐기업무 참여인력*

(단위: 명(%))

부 문		응답수(백분율)					
		폐기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	장서폐기 담당사서 참여	주제전문 사서 참여	장서보존 사서 참여	교수・이용자 참여	계 (1개관당)
폐기율	3% 이상	3(100.0)	3(100.0)	2(66.7)	0(0.0)	0(0.0)	8(2.7)
	3% 미만	10(34.5)	26(86.2)	4(13.8)	5(17.2)	2(6.9)	46(1.6)
계		13(40.6)	28(87.5)	6(18.8)	5(15.6)	2(6.3)	54(1.7)

*복수응답임.

www.kci.go.kr

〈표 10〉 장서폐기업무 시 참고정보원*

(단위: 명(%))

부 문		응답수(백분율)							
		대출 및 이용기록	최종 대출일	이용자 의견	커리큘럼 및 지정도서	타도서관의 소장목록	주요 출판 목록	기타	계 (1개관당)
폐기율	3% 이상	3(100.0)	2(66.7)	0(0.0)	1(33.3)	0(0.0)	0(0.0)	1(33.3)	7(2.3)
	3% 미만	22(75.9)	10(34.5)	2(6.9)	6(20.7)	0(0.0)	0(0.0)	14(48.3)	54(1.9)
계		25(78.1)	12(37.5)	2(6.3)	7(21.9)	0(0.0)	0(0.0)	15(46.9)	61(1.9)

*복수응답임.

〈표 11〉 폐기자료의 유형*

(단위: 명(%))

부 문		응답수(백분율)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시청각자료	학위논문	계(1개관당)
폐기율	3% 이상	3(100.0)	2(66.7)	2(66.7)	0(100.0)	3(100.0)	10(3.3)
	3% 미만	29(100.0)	21(72.4)	21(72.4)	9(31.0)	13(44.8)	92(3.2)
계		32(100.0)	23(71.9)	23(71.9)	9(28.1)	16(50.0)	103(3.2)

*복수응답임.

폐기자료 선정 시 고려하는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결과, 1순위로 응답한 요소는 자료의 물리적인 상태, 2순위는 복본 및 중복자료, 출판년도와 같은 자료의 수명, 3순위는 과거의 이용 및 대출기록 등의 요소가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료의 입수형태 등은 폐기자료를 선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파기가 27개관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기증, 판매 등의 순이었다(〈표 12〉 참조).

이 폐기자료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조사한 결과, 파기하는 경우, 대부분 전문기관에 양도하여 재생종이로 만들거나 폐지로 처리하고 있었다. 기증하는 경우, 타도서관이나 대학의 부속기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용자에게 '폐기자료 전시

〈표 12〉 폐기자료의 처리방법*

(단위: 명(%))

부 문		응답수(백분율)					
		파기	기증	교환	별치	판매	계(1개관당)
폐기율	1.5 이상	3(100.0)	1(33.3)	0(0.0)	0(0.0)	0(0.0)	4(1.3)
	0.3 미만	24(82.8)	13(44.8)	0(0.0)	2(6.9)	6(20.7)	45(1.5)
계		27(84.4)	14(43.8)	0(0.0)	2(6.3)	6(18.8)	49(1.5)

*복수문항임.

www.kci.go.kr

회', '도서나눔전' 등과 같은 도서관 행사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별치하는 경우, 도서관 내 별도의 보존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판매하는 경우,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북페어나 북세일과 같은 이벤트의 형태로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이벤트는 이용자에게 도서관 홍보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다.

3.2.2 장서폐기 지침현황

조사대상 32개 대학도서관의 성문화된 폐기지침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성문화된 폐기지침이 있는 도서관은 29개관(90.6%)이었고, 성문화된 지침이 없는 도서관은 3개관(9.4%)으로 조사되었다. 장서폐기지침이 있는 29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폐기지침의 정기적인 개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29개 도서관 중에서 11개관(37.9%)만이 폐기지침을 개정하고 있었고, 18개관(62.1%)은 개정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 대학도서관 장서폐기지침상의 폐기자료 선정기준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서폐기지침이 있는 도서관 29개관 중에서 28개관은 파오손・소재불명자료를 위한 폐기기준이 있었다. 자료유형별 폐기기준이 있는 도서관도 13개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학문분야별 폐기기준이나 전자자료에 관한 폐기기준, 자관의 특성화장서에 대한 폐기기준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표 13〉 참조).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에서 자료유형별로 폐기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자료의 순으로 폐기 기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청각자료에 대한 폐기기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자료유형별 언급이 없는 도서관도 4개관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향후 자료유형별 폐기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폐기 지침이 있는 29개 도서관 전체에서 자료유형별 폐기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폐기지침 상에 폐기기준 항목이 있다 해도 그 내용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서폐기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연간 폐기율을 조사하였다. 장서폐기지침이 있는 도서관 29개관 중에서 연간폐기율을 3%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은 12개관이고, 3% 이상 - 5% 미만인 도서관은 1개관, 5%

〈표 13〉 현재 폐기지침상의 폐기기준*

(단위: 명(%))

부 문		응답수(백분율)						
		파오손・소재 불명자료를 위한 폐기기준	자료유형별 폐기기준	전자자료에 관한 폐기기준	학문분야별 폐기기준	자관의 특성 화장서에 대한 폐기기준	관련항목이 없다.	계 (1개관당)
폐기율	3% 이상	3(100.0)	3(100.0)	0(0.0)	2(66.7)	0(0.0)	0(0.0)	8(2.6)
	3% 미만	25(96.2)	10(38.5)	3(11.5)	5(19.2)	0(0.0)	1(3.8)	48(1.8)
계		28(96.6)	13(44.8)	3(10.3)	7(24.1)	0(0.0)	1(3.4)	56(1.9)

*복수응답임.

www.kci.go.kr

〈표 14〉 자료유형별 장서폐기기준*

(단위: 명(%))

부 문		응답수(백분율)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시청각자료	학위논문	관련항목이 없다.	계 (1개관당)
폐기율	3% 이상	3(100.0)	3(100.0)	2(66.7)	0(0.0)	2(66.7)	0(0.0)	8(2.6)
	3% 미만	18(69.2)	15(57.7)	10(38.5)	2(7.7)	6(23.1)	4(15.4)	51(2.0)
계		21(72.4)	18(62.1)	12(41.4)	2(6.9)	8(27.6)	4(13.7)	59(2.0)

*복수응답임.

〈표 15〉 연간폐기율

(단위: 명(%))

부 문		응답수(백분율)						
		1%미만	1%이상 -3%미만	3%이상 -5%미만	5%이상 -7%미만	기타	관련항목이 없다.	계
폐기율	3% 이상	0(0.0)	2(66.7)	0(0.0)	0(0.0)	0(0.0)	1(33.3)	3(100.0)
	3% 미만	3(11.5)	7(26.9)	1(3.8)	2(7.7)	3(11.5)	10(38.5)	26(100.0)
계		3(10.3)	9(31.0)	1(3.4)	2(6.9)	3(10.3)	11(37.9)	29(100.0)

이상 - 7% 미만인 도서관은 2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개관 중에서 11개관은 연간폐기율에 대한 항목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15〉 참조).

장서폐기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폐기율이 높은 도서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폐기지침의 항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폐기율이 낮은 도서관의 경우, 5개관(19.2%)은 폐기절차나 방법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지침으로 실제 폐기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29개 대학도서관 중 16개관(55.2%)에서 현재 폐기지침으로 폐기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응답을 바탕으로 장서폐기지침을 개선할 경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양화된 장서유형을 수용하기 위한 폐기자료 선정기준의 확장과 개선(21개관(72.4%))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장서폐기업무 절차의 개선 및 간소화(5개관(17.2%)), 폐기자료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선(3개관(10.3%)) 등에 대해 응답하였다.

3.2.3 장서폐기의 개선을 위한 인식조사

대학도서관 장서폐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폐기 지침 및 폐기자료 처리방법에 대한 개선 사항과 폐기자료 선정 기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폐기 지침 및 폐기자료 처리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장서폐기지침을 개발하거나 개선할 때 적당

www.kci.go.kr

하다고 생각되는 연간폐기율에 대해 조사하였다 폐기율이 3% 이상인 대학도서관의 경우 모든 도서관에서 3% 이상으로 폐기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개관의 경우에는 현재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16〉 참조).

장서폐기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폐기지침의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폐기자료 처리에 관한 항목, 폐기 범위・대상자료에 관한 항목의 개선요구가 가장 많았다. 특히 폐기율이 낮은 도서관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표 17〉 참조).

폐기자료의 처리 방법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해 보았다. 1순위로 선호하는 방법은 기증을 꼽았으며, 이밖에 파기, 판매를 통한 처리방법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2) 폐기자료 선정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

폐기자료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자료유형별 선정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고른 응답률을 보였는데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단행본과 전자자료, 참고자료, 학위논문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폐기자료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과 자료유형을 바탕으로 폐기자료 선정 기준의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문항은 일반적인 폐기자료 선정요소와 단행본, 전자자료,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시청각자료, 학위논문 등 자료 형태별 폐기자료 선정요소로 구분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요소에 대한 중요

〈표 16〉 선호하는 연간폐기율

(단위: 명(%))

부 문		응답수(백분율)						
		1%이상 -3%미만	3%이상 -5%미만	5%이상 -7%미만	7%이상 -9%미만	9%이상 -11%미만	기타	계
폐기율	3% 이상	0(0.0)	2(66.7)	0(0.0)	1(33.3)	0(0.0)	0(0.0)	3(100.0)
	3% 미만	15(51.7)	8(27.6)	3(10.3)	0(0.0)	0(0.0)	3(10.3)	29(100.0)
계		15(46.9)	10(31.3)	3(9.4)	1(3.1)	0(0.0)	3(9.4)	32(100.0)

〈표 17〉 개선해야 할 폐기지침의 항목*

(단위: 명(%))

부 문		응답수(백분율)				
		폐기자료 처리에 관한 항목	폐기위원회・폐기업무 참여에 관한 항목	폐기 범위・대상자료에 관한 항목	폐기시기와 시행빈도에 관한 항목	계(1개관당)
폐기율	3% 이상	1(33.3)	0(0.0)	3(100.0)	2(66.7)	6(2.0)
	3% 미만	26(89.7)	18(62.1)	24(82.8)	13(44.8)	81(2.8)
계		27(84.4)	18(56.3)	27(84.4)	15(46.9)	87(2.7)

*복수응답임.

www.kci.go.kr

〈표 18〉 선호하는 폐기자료 처리방법*

부 문			응답수(백분율)					
			파기	기증	교환	별치	판매	계
폐기율	3% 이상	1순위	0(0.0)	3(100.0)	0(0.0)	0(0.0)	0(0.0)	3(100.0)
		2순위	1(33.3)	0(0.0)	1(33.3)	0(0.0)	1(33.3)	3(100.0)
		3순위	2(66.7)	0(0.0)	1(33.3)	0(0.0)	0(0.0)	3(100.0)
	3% 미만	1순위	8(27.6)	13(44.8)	2(6.9)	2(6.9)	4(13.8)	29(100.0)
		2순위	10(34.5)	7(24.1)	5(17.2)	4(13.8)	3(10.3)	29(100.0)
		3순위	8(27.6)	6(20.7)	5(17.2)	5(17.2)	5(17.2)	29(100.0)
계		1순위	8(25.0)	16(50.0)	2(6.9)	2(6.9)	4(13.8)	32(100.0)
		2순위	11(34.4)	7(21.9)	6(18.8)	4(12.5)	4(12.5)	32(100.0)
		3순위	10(31.3)	6(18.8)	6(18.8)	5(15.6)	5(15.6)	32(100.0)

*우선순위 문항임.

〈표 19〉 자료유형별 선정기준*

(단위: 명(%))

부 문		응답수(백분율)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학위논문	계(1개관당)
폐기율	3% 이상	3(100.0)	3(100.0)	2(66.7)	2(66.7)	2(66.7)	0(0.0)	13(4.7)
	3% 미만	15(51.7)	20(69.0)	15(51.7)	19(65.5)	16(55.2)	13(44.8)	98(3.4)
계		18(56.3)	23(71.9)	17(53.1)	21(65.6)	18(56.3)	15(46.9)	112(3.5)

*복수응답임.

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세부사항별로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 일반적인 폐기자료 선정요소

대학도서관에서 장서폐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객관적인 폐기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폐기자료선정요소에 대해 사서들의 요구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0〉 참조).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요소가 3점 이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폐기자료 선정기준에 제시된 문항 중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요소는 '대학의 역사가 담겨 있는 기록과 자료(4.34점)'였으며, '과거와 현재의 대출기록 및 이용통계', '자료의 파오손 정도', '주제전문사서 및 전문가의 판단', '망실 및 소재불명자료', '자료의 주제와 정보의 최신성' 등의 항목도 4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출판사 및 저자의 신뢰도', '기증・기부 등과 같은 입수자료', '주요 출판목록 자료' 등의 항목은 3점미만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폐기자료 선정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요소는 2.56점인 '자료의 언어'로 나타났다.

www.kci.go.kr

〈표 20〉 일반적인 폐기자료 선정기준 중요도분석

부 문		전 체	폐 기 율	
			3% 이상	3% 미만
물리적 상태	자료의 파오손 정도	4.25	4.67	4.21
	망실 및 소재불분명 자료	4.16	4.67	4.10
	완전성(자료의 일부분이 망실된 자료)	3.72	3.33	3.76
	복본 및 중복자료	3.69	4.00	3.66
	대체성(전자자원이나 다른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	3.63	4.00	3.59
	평균	3.89	4.13	3.86
내용 및 컨텐츠	대학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과 자료	4.34	4.67	4.31
	자료의 주제와 정보의 최신성	4.06	4.00	4.07
	정보의 정확성	3.75	3.00	3.83
	현 장서와의 관련 및 적합성	3.66	3.67	3.66
	내용의 깊이(대학, 연구장서로서 내용의 깊이)	3.63	4.00	3.59
	대학의 커리큘럼 및 연구경향과의 연관성	3.56	4.00	3.52
	대학출판사의 발행자료	3.56	4.00	3.52
	자료의 출판년도	3.53	4.33	3.45
	대학커뮤니티(교직원, 학생, 동문 등)의 출판자료	3.50	4.33	3.41
	내용의 범위(자료의 주제, 시간, 지리적 범위)	3.38	4.00	3.31
	개정되거나 판이 바뀐 자료	3.36	4.67	3.59
	출판사 및 저자의 신뢰도	2.75	2.67	2.76
	자료의 언어	2.56	2.00	2.62
	평균	3.51	3.80	3.51
이용	과거와 현재의 대출기록 및 이용통계	4.31	5.00	4.24
	관내 이용 및 열람	3.78	3.33	3.83
	미래의 예측가능한 이용	3.69	3.67	3.69
	자료의 주제에 따른 학과 및 이용자의 범위와 규모	3.66	3.67	3.66
	인용패턴	3.56	3.33	3.59
	영향력지수	3.56	3.67	3.55
	이용자의 의견	3.56	4.33	3.48
	상호대차, 원문복사의 이용가능성	3.38	4.33	3.28
	평균	3.69	3.92	3.67
기타 요소	주제전문사서 및 전문가의 판단	4.16	4.67	4.10
	입수 당시의 가격 및 현 시장가치	3.22	3.33	3.21
	주요 출판목록 자료	2.94	3.33	2.90
	기증, 기부 등과 같은 입수자료	2.91	3.33	2.86
	평균	3.31	3.67	3.27

■ 자료유형별 폐기자료 선정요소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자료 유형을 수용하기 위하여 자료유형별로 폐기기준의 세부요소에 대한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유형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참고자료, 시청각자료, 학위논문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www.kci.go.kr

이를 바탕으로 폐기자료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첫째, 단행본의 폐기자료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부요소는 일반적인 장서폐기기준의 세부요소와 경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파오손 정도', '주제전문사서 및 전문가의 판단', '과거와 현재의 대출기록 및 이용통계' 등이 평균값 4.0이상으로 나와 폐기자료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되었다(〈표 21〉 참조).

둘째, 연속간행물 폐기자료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할 항목은 '학제적인 연구 및 학술커뮤니케이션 지원', '학술지와 교양지, 업계지, 회보 등의 구분', '영향력지수', '예산과 구독비용', '원문복사와 원문이용 가능성' 등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셋째, 전자자료에 대한 세부요소를 살펴보면, 모든 세부 항목이 평균값 3.0 이상으로 나와 장서폐기를 실시할 때 이들 항목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정보의 최신성을 나타내는 '정보의 업데이트 빈도', 전자자원의 약점인 안정성과 보존에 관한 '자료의 영구적인 접근 및 보존', '자료의 안정성' 등의 항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23〉 참조).

넷째, 참고자료의 폐기자료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할 항목은 '지정도서, 교과서 등의 대학강의지원'이었고 '자료의 유형', '개정여부 및 개정빈도', '주요 이용자의 범위 및 규모', '자료의 형태'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표 24〉 참조).

〈표 21〉 선정기준 중요도분석-단행본

부 문	전 체	폐 기 율	
		3% 이상	3% 미만
자료의 파오손 정도	4.31	4.67	4.28
주제전문사서 및 전문가의 판단	4.13	4.67	4.07
과거와 현재의 대출기록 및 이용통계	4.06	4.33	4.03
대학관련자료	3.75	4.33	3.69
복본 및 중복자료	3.72	4.33	3.66
개정되거나 판이 바뀐 자료	3.66	4.00	3.62
대학의 커리큘럼, 연구경향의 연관성	3.59	4.33	3.52
자료의 출판년도	3.53	4.33	3.45
내용의 범위 및 깊이	3.31	4.00	3.24
이용자의 의견	3.28	4.00	3.23
상호대차 이용가능성	3.25	4.00	3.17
출판사 및 저자의 신뢰도	2.94	3.00	2.93
입수당시의 가격 및 현 시장가치	2.94	2.67	2.97
주요 출판목록 자료	2.78	2.67	2.79
기증, 기부 등과 같은 입수자료	2.72	2.67	2.72
평균	3.46	3.87	3.42

www.kci.go.kr

〈표 22〉 선정기준 중요도분석-연속간행물

부 문	전 체	폐 기 율	
		3% 이상	3% 미만
학제적인 연구 및 학술커뮤니케이션 지원	4.00	4.00	4.00
원문복사와 원문이용 가능성	3.94	4.67	3.86
학술지와 교양지, 업계지, 회보 등의 구분	3.84	4.00	3.83
영향력지수	3.81	4.00	3.79
예산과 구독비용	3.78	4.00	3.76
자료형태(인쇄자료와 전자자료)	3.69	4.33	3.62
인용데이터	3.66	4.00	3.62
구독하고 있는 기간	3.56	3.33	3.59
결호가 있거나 부분적으로 망실된 학술지	3.50	2.67	3.59
다른 형태자료와의 가격비교	3.34	3.33	3.34
폐간, 중단 또는 변경된 학술지	3.34	2.67	3.41
색인과 초록의 제공여부	3.31	4.00	3.24
출판사 및 에이전시의 평판과 신뢰도	3.16	2.67	3.21
평균	3.61	3.67	3.60

〈표 23〉 선정기준 중요도분석-전자자료

부 문	전 체	폐 기 율	
		3% 이상	3% 미만
정보의 업데이트 빈도	4.03	4.00	4.03
자료의 영구적인 접근 및 보존	4.03	4.67	3.97
자료의 안정성	4.00	3.67	4.03
지원하는 파일 형태(다운로드, 프린트 가능 여부)	3.72	3.33	3.76
지원하는 검색구조 및 검색실패율	3.59	3.67	3.59
인쇄자료, 패키지, 라이센스 등 구독형태에 따른 비용차이	3.59	4.00	3.55
인터페이스 사용용이성	3.56	4.00	3.52
색인의 종류(저자, 주제, 저널색인)	3.44	4.00	3.38
출판사의 기술지원 및 튜토리얼 지원	3.41	4.33	3.31
시소러스, 하이퍼링크 이용여부	3.38	3.00	3.41
출판사 및 에이전시의 평판과 신뢰도	3.22	3.33	3.21
평 균	3.63	3.81	3.61

〈표 24〉 선정기준 중요도분석-참고자료

부 문	전 체	폐 기 율	
		3% 이상	3% 미만
지정도서, 교과서 등의 대학강의지원	3.84	4.33	3.79
자료의 유형(신문, 사전, 지도 등)	3.72	4.00	3.69
개정여부 및 개정빈도	3.72	4.33	3.66
주요 이용자의 범위 및 규모	3.72	4.00	3.69
자료의 형태(전자자료, 미디어자료, 인쇄자료)	3.63	4.00	3.59
입수시 가격 및 현 시장가치	3.00	2.67	3.03
평 균	3.60	3.88	3.58

www.kci.go.kr

〈표 25〉 선정기준 중요도분석-시청각자료

부 문	전 체	폐 기 율	
		3% 이상	3% 미만
자료의 상태(작동 여부)	4.34	4.33	4.34
자료의 형태(지원 기기의 이용가능성)	4.13	4.33	4.10
자료의 유형(비디오, DVD, CD 등)	3.50	4.00	3.45
세트자료일 경우, 부분적인 망실여부	3.50	3.67	3.48
딸림자료	3.22	3.00	3.24
평 균	3.74	3.87	3.72

〈표 26〉 선정기준 중요도분석-학위논문

부 문	전 체	폐 기 율	
		3% 이상	3% 미만
전자형태로의 이용가능성	4.16	4.67	4.10
해당자료의 소속기관(해당대학, 타대학, 해외학위논문)	3.84	3.67	3.86
타 기관에서의 이용가능성	3.66	4.67	3.55
자료의 주제에 따른 학과, 이용자의 범위와 규모	3.66	3.67	3.66
논문의 발행년도	3.19	3.67	3.14
평 균	3.70	4.07	3.66

다섯째, 시청각자료의 폐기자료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 대해 3.0이상의 평균값이 나와 제시한 문항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여섯째, 학위논문을 폐기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요소로는 '전자형태로의 이용가능성'이 평균 4.1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자료의 소속기관', '타 기관에서의 이용가능성', '자료의 주제에 따른 학과, 이용자의 범위와 규모' 등의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4.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개선방안

4.1 운영 방안

4.1.1 담당인력 및 조직구성

국외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장서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폐기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장서폐기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자료를 평가하여 개별 자료에 맞는 적절한 도서관이나 보존도서관으로 이관하고 형태를 변환하여 보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폐기를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도 장서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서폐기를

www.kci.go.kr

시행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도서관마다 장서폐기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도서관 현황조사 결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장서폐기 담당사서를 중심으로 폐기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국외 대학도서관처럼 장서폐기 업무만을 전담하는 사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폐기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다른 업무를 맡은 사서가 이 폐기 업무를 처리하는 실정이었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규모와 조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폐기업무 전담사서를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위하여 폐기업무 담당사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서폐기는 폐기업무 외에 자료의 수서, 보존, 예산 등 많은 도서관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갖춘, 일정기간의 경력이 있는 사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장서폐기 담당사서가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다양한 자료유형과 모든 학문분야에 대한 자료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도서관 내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폐기위원회의 구성은 장서폐기를 위한 도서관 내의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명목상의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 별로 도서관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 폐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차이가 있겠지만 폐기담당사서와 함께 수서, 보존과 같은 장서관리사서, 대출담당사서, 주제전문사서 등의 인력을 폐기위원으로 구성하여 장서폐기의 시행빈도, 시행기간, 시행규모와 같은 세부적인 계획 수립에 참여시킨다면, 성공적인 장서폐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폐기위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타 부서의 담당자일 지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교내의 교수진과 대표성을 지닌 이용자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장서폐기에 대한 학문분야의 전문적인 의견과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4.1.2 다양한 정보의 반영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자료 선정 시 참고하는 정보로는 자료의 물리적인 상태와 이용관련 정보가 있었다. 자료의 물리적인 상태가 폐기자료를 선정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면, 실무에서 폐기자료의 선정에 참고하는 정보는 자료의 이용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료의 이용도가 자료 평가에 중요한 요소지만, 이 요소로만 폐기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폐기자료의 가치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이용정보를 부가적인 정보와 함께 참고한다.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대출되지 않은 자료를 폐기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폐기자료를 선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종합적인 이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대출기록 외에 최종대출일, 관내열람, 예상 이용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참고해야 하

www.kci.go.kr

며, 이를 토대로 자료의 물리적인 상태, 출판년도, 복본의 여부, 자료유형, 학문분야 등의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지정도서와 같은 정보를 참고한다. 대학별로 학문분야가 다양하므로 대학도서관에서는 정기적으로 학과의 규모, 연구 분야, 이용자의 범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강의커리큘럼과 지정도서목록과 같은 정보를 참고하여 장서폐기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제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 방법은 학문분야 별로 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장서폐기의 공개적인 시행으로 인해 폐기에 대한 거부감을 경감시키는 인식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폐기자료에 대한 이차적인 검토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료를 폐기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타 참고정보원의 개발과 타 도서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먼저 국외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폐기할 때 권위 있는 서지목록이나 출판목록을 기초로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목록을 참고하여 폐기를 진행하는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업무에 참고할 만한 출판목록이나 서지목록도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서는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이와 같은 참고정보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 폐기업무에 있어서 타 도서관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서관 간의 협력을 긴밀히 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도서관과 폐기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1.3 처리방법의 다양화

폐기자료의 처리 방법에 대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인식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기증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파기의 방법을 통하여 폐기자료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도서관에서 폐기자료를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 기증이나 교환의 절차를 알아보고 있지만, 적절한 기증처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막상 기증처를 찾는다 해도, 받는 기관에서 수행 절차와 자료의 재검토과정으로 인해 그 작업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도 폐기자료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기증이나 판매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제적도서 북페어', '북페어', '도서・잡지 나눔전', '도서나눔행사', '아름다운 책 나눔터' 등과 같은 도서관 행사를 통하여 폐기자료를 도서관 내에 전시하고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폐기자료를 처리하는 것은 폐기자료의 가치를 연장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효과와 함께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폐기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켜주고 부수적으로 도서관에 대해 홍보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폐기자료의 처리방법은 대학도서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국외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내의 행사는 물론이고 자료의 폐기와 교환을 주관하는 단체가 존재하여 관종을 불문하고 폐기자료에

www.kci.go.kr

대한 도서관간의 기증과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자료를 폐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폐기자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처리 방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4.2 지원방안

4.2.1 폐기지침의 구성 및 지속적인 관리

현재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지침은 대부분 파・오손자료, 형식적인 폐기기준과 처리에 관한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장서개발정책 내에 폐기에 관련된 항목이 없는 도서관도 있었으며 폐기관련항목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항목만 설정한 채 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폐기지침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폐기지침 항목의 편중, 서술수준의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폐기지침의 세부항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 폐기지침의 목적이나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인디애나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장서폐기지침 상에 이관, 파기, 대체 및 변환 등의 다양한 폐기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폐기에 관련된 용어나 개념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폐기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장서폐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통해 폐기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서관 내에서 폐기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폐기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와 같은 사항도 개별 도서관별로 상황에 맞게 설정해야 하지만 장서폐기지침 상에 폐기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한정할 수 있는 연간 폐기율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장서폐기지침은 폐기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장서폐기지침은 폐기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수월히 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만, 실제 대학도서관에서 폐기업무를 수행하는 사서들은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였다. 폐기지침이 대학의 환경이나 다양한 장서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폐기기준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나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진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자료의 제적 또는 폐기: 관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등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폐기자료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국외 대학도서관에서는 장서폐기지침을 별도의 문서로 마련하고 있으며, 그 항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았기 때문에 사서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실무에 적용가능 하도록 장서폐기지침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서폐기지침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폐기지침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90.6%의 도서관이 성문화된 지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별도의 지침으로 제정되기보다 일반적인 장서폐기정책의 일부 항목에 속해 있었다. 설사 별도의 세칙이나 내규를 개발

www.kci.go.kr

하여 관리하고 있더라도, 개별도서관에서 장서폐기업무를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도서관은 폐기지침만 개발해 놓고 추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대개 단행본 중심으로 폐기지침이 마련되어 있을 뿐, 전자자료, 뉴미디어 등에 대해서는 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장서유형이나 학문의 변화 추세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한편 국외 대학도서관의 경우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장서폐기지침을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 폐기지침은 대학의 환경변화와 상황에 맞추어 수시로 개정되어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 이 폐기지침은 성문화된 문서로 개별 대학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의 학과, 교육, 연구경향, 이용자의 범위와 규모 등과 같은 자관의 특징을 반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2.2 폐기자료 선정기준의 정비

대학도서관의 폐기자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서유형과 교육환경을 반영한 폐기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대학도서관은 많은 장서와 다양한 장서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작 장서폐기에 있어서는 장서유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주로 단행본을 위주로 한 폐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국외 대학도서관에서는 대학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에 대해 폐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교과서, 신문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지침과 절차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의 폐기담당사서를 대상으로 향후 자료유형별 폐기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도서관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특히 장서폐기에 있어 시청각자료와 전자자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반영한 주제별 폐기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전체 장서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폐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아직까지 주제 별로 폐기를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은 거의 없었다. 그에 반해 해외 대학도서관은 주제별 분관도서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전문사서가 일반화 되어 있어서 주제별로 장서폐기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제분야에 따른 별도의 폐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서들이 폐기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주제 분야별 폐기기준을 마련한다면 대학의 특징과 다양한 학문분야를 반영한 폐기업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4.2.3 세분화된 폐기자료 선정기준의 개발

장서폐기지침에서 폐기자료의 선정기준은 폐기자료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항목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문헌분석, 해외 대학도서관 사례 연구와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의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장서폐기기준과 자료유형별 장서폐기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자료유형별 폐기기준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참고자료, 시청각자료, 학위논문 등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www.kci.go.kr

(1) 일반적인 폐기기준

일반적인 폐기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표 27〉 참조).

다음은 폐기율이 3% 이상인 도서관과 3% 미만인 도서관을 구분하여, 세부요소들의 중요도가 평균값이 4.0 이상인 요소는 필수요소로, 평균값이 3.0 이상 4.0 미만인 요소는 선택요소로 제시하고자 한다(〈표 28〉 참조). 이 폐기율은 한국도서관기준(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간 폐기율인 3%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기준은 국외 대학도서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국내에서 현재 일정규모의 폐기를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과 비교적 폐기에 소극적인 도서관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 자료유형별 폐기기준

일반적인 폐기기준 요소와 함께 자료유형별 폐기기준을 단행본, 전자자료,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시청각자료, 학위논문 등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인 폐기기준과 마찬가지로 폐기율을 구분하고, 필수요소와 선택요소로 나누어 그 결과를 제안하였다(〈표 29〉 참조).

〈표 27〉 일반적인 폐기기준의 세부요소

부 문		세 부 요 소
일반적인 폐기기준	물리적 상태	• 파오손 정도 • 완전성(자료의 일부분이 망실된 자료) • 복본 및 중복자료 • 대체성(전자자원이나 다른형태의 자료로 이용가능한 자료)
	내용 및 컨텐츠	• 대학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과 자료 • 자료의 주제와 정보의 최신성 • 정보의 정확성 • 개정되거나 판이 바뀐 자료 • 현 장서와의 관련성 및 적합성 • 내용의 깊이(대학, 연구장서로서 내용의 깊이) • 대학의 커리큘럼 및 연구경향과의 연관성 • 대학출판사의 발행자료 • 자료의 출판년도 • 대학커뮤니티(교직원, 학생, 동문 등)의 출판자료 • 내용의 범위(자료의 주제와 정보의 최신성)
	이용	• 과거와 현재의 대출기록 및 이용기록 • 관내열람 및 이용 • 미래의 예측가능한 이용 • 자료의 주제에 따른 학과 및 이용자의 범위 • 이용자의 의견 • 인용패턴 및영향력지수 • 상호대차의 이용가능성
	기타	• 주제전문사서 및 전문가의 판단 • 입수 당시의 가격 및 현 시장가치

www.kci.go.kr

〈표 28〉 일반적인 폐기기준의 세부요소-폐기율 구분

부 문		세 부 항 목	
		폐기율 3% 이상 도서관	폐기율 3% 미만 도서관
물리적 상태	필수 요소	• 파오손 정도, 망실·소재불분명자료 • 복본 및 중복자료 • 대체성(다른형태로 이용가능한 자료)	• 파오손 정도, 망실·소재불분명자료
	선택 요소	• 자료의 완전성	• 자료의 완전성 • 복본 및 중복자료 • 대체성(다른형태로 이용가능한 자료)
내용 및 컨텐츠	필수 요소	• 대학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과 자료 • 개정되거나 판이 바뀐 자료 • 자료의 출판년도 • 대학관련(커뮤니티, 출판사)의 출판자료 • 자료의 주제와 정보의 최신성 • 내용의 깊이 및 범위 • 대학의 커리큘럼·연구경향과의 연관성	• 대학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과 자료 • 자료의 주제와 정보의 최신성
	선택 요소	• 현 장서와의 관련성 및 적합성 • 정보의 정확성	• 정보의 정확성 • 현 장서와의 관련성 및 적합성 • 개정되거나 판이 바뀐 자료 • 내용의 깊이 및 범위 • 대학의 커리큘럼·연구경향과의 연관성 • 대학관련(커뮤니티, 출판사)의 출판자료 • 자료의 출판년도
이용	필수 요소	• 대출기록 및 이용기록 • 이용자의 의견 • 상호대차의 이용가능성	• 대출기록 및 이용기록
	선택 요소	• 미래의 예측가능한 이용 • 자료 주제에 따른 학과·이용자의 범위 • 관내열람 및 이용 • 인용패턴 및 영향력지수	• 관내열람 및 이용 • 미래의 예측가능한 이용 • 자료 주제에 따른 학과·이용자의 범위 • 인용패턴 및 영향력지수 • 이용자의 의견 • 상호대차의 이용가능성
기타	필수 요소	• 주제전문사서 및 전문가의 판단	• 주제전문사서 및 전문가의 판단
	선택 요소	• 입수 당시의 가격 및 현 시장가치 • 주요 출판목록 자료 • 기증, 기부 등과 같은 입수자료	• 입수 당시의 가격 및 현 시장가치

www.kci.go.kr

〈표 29〉 자료유형별 폐기기준 세부요소 - 폐기율 구분

부 문		세 부 항 목	
		폐기율 3% 이상 도서관	폐기율 3% 미만 도서관
단행본	필수요소	• 주제전문사서 및 전문가의 판단 • 대출기록 및 이용통계 • 대학관련자료 • 복본 및 중복자료 • 대학의 커리큘럼 · 연구경향과의 연관성 • 자료의 최신성 및 내용의 범위, 깊이 • 이용자의 의견 및 상호대차 이용가능성	• 주제전문사서 및 전문가의 판단 • 대출기록 및 이용통계
	선택요소		• 대학관련자료 • 복본 및 중복자료 • 자료의 최신성 및 내용의 범위, 깊이 • 대학의 커리큘럼 · 연구경향과의 연관성 • 이용자의 의견 및 상호대차 이용가능성
연속간행물	필수요소	• 원문복사 및 원문이용가능성 • 자료의 유형 및 형태 • 학제적인 연구 · 학술커뮤니케이션 지원 • 영향력지수 및 인용데이터 • 예산과 구독비용 • 색인과 초록의 제공여부	• 학제적인 연구 · 학술커뮤니케이션 지원
	선택요소	• 구독하고 있는 기간	• 원문복사 및 원문이용가능성 • 자료의 유형 및 형태 • 영향력지수 및 인용데이터 • 예산과 구독비용 • 결호 및 폐간, 중단, 변경된 학술지 • 색인과 초록의 제공여부 • 출판사 및 에이전시의 평판과 신뢰도
전자자료	필수요소	• 자료의 영구적인 접근 및 보존 • 출판사의 기술지원 및 튜토리얼 지원 • 정보의 업데이트 빈도 • 구독형태에 따른 비용차이 • 인터페이스 사용용이성 • 색인의 종류	• 정보의 업데이트 빈도 • 자료의 안정성
	선택요소	• 자료의 안정성 • 지원하는 파일형태 및 검색구조 • 출판사의 평판과 신뢰도 • 시소러스, 하이퍼링크 이용여부	• 자료의 영구적인 접근 및 보존 • 지원하는 파일형태 및 검색구조 • 구독형태에 따른 비용차이 • 인터페이스 사용용이성 • 시소러스, 하이퍼링크, 색인의 이용여부 • 출판사의 신뢰도 및 기술지원
참고자료	필수요소	• 지정도서, 교과서 등의 대학강의지원 • 개정여부 및 개정빈도 • 자료의 유형 및 형태 • 주요 이용자의 범위 및 규모	
	선택요소		• 지정도서, 교과서 등의 대학강의지원 • 개정여부 및 개정빈도 • 자료의 유형 및 형태 • 입수 시 가격 및 현 시장가치

www.kci.go.kr

부 문		세 부 항 목	
		폐기율 3% 이상 도서관	폐기율 3% 미만 도서관
시청각자료	필수요소	• 자료의 상태 • 자료의 유형 및 형태	• 자료의 상태 • 자료의 유형 및 형태
	선택요소	• 세트자료일 경우 부분적인 망실여부 • 딸림자료	• 세트자료일 경우 부분적인 망실여부 • 딸림자료
학위논문	필수요소	• 전자형태로의 이용가능성 • 타 기관에서의 이용가능성	• 전자형태로의 이용가능성
	선택요소	• 자료 주제에 따른 이용자의 범위와 규모 • 논문의 발행년도	• 타 기관에서의 이용가능성 • 자료 주제에 따른 이용자의 범위와 규모 • 논문의 발행년도

5. 결 론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장서폐기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문헌연구와 국외대학의 사례조사, 국내 대학도서관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국내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장서폐기를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외 대학도서관에서는 장서폐기업무를 장서관리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폐기업무에 있어 도서관내의 다양한 인력과 각 분야의 전문가, 이용자, 타 대학도서관 등과의 협력을 토대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각 도서관의 환경과 목표에 부합하는 별도의 성문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장서폐기의 목표, 폐기자료 선정기준, 처리방법,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장서폐기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과 현재의 대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폐기지침의 문제로 인하여 장서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장서폐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장서폐기를 시행하는 담당인력 및 조직구성과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 대학도서관은 장서폐기담당사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각 분야의 사서와 전문가, 이용자로 구성된 폐기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서폐기의 참여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폐기업무가 도서관의 공간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서관리의 일환으로 도서관장서의 질적 관리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업무로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반영하여 장서폐기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장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참고정보원의 개발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대학 교육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도서관 간의 협력을 긴밀히 하여 폐기에 대한 의견을 상호교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서폐기지침은 개별도서관의 목적과 실정에 맞게 성문화해서 개발해야 하며, 대학

www.kci.go.kr

의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장서폐기지침의 항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각 대학도서관에서는 장서폐기지침의 구성요소를 체계화하고, 개별 대학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실무에 보다 쉽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폐기자료의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자료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폐기기준의 구성요소를 세분화하여 장서의 가치를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장서유형을 수용할 수 있는 폐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폐기자료의 처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기존의 파기방식에서 진일보하여 자료의 가치를 유지하고 재창출할 수 있도록 폐기자료의 처리방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의 개선방안은 향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장서폐기 업무를 시행하는 데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기백. 2008.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규정 및 실태 조사 분석.『사대도협회지』, 9: 37-73.

류인석. 1997. 대학도서관 자료폐기에 관한연구.『인문과학연구』, 3: 219-237.

윤희윤. 1989. 대학도서관 장서폐기 기준고.『도서관』, 304: 5-21.

_____. 2007.『장서관리론』. 대구: 태일사.

이은철. 1982. 도서관장서의 폐기기준에 관한 고찰.『도서관학논집』, 9: 213-240.

_____. 2000. 장서폐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연구.『국회도서관보』, 37(1): 3-24.

임현. 2001. 대학도서관의 폐기자료 선정요소에 관한 연구.『敎育論叢』, 통권(18): 411-42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a.『2009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_____. 2010b.『2010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도서관협회. 2003.『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_____. 2009.『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위원회. 2001.『대학도서관 평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Banks, Julie. 2002. "Weeding Book Collections in the Age of the Internet." *Collection Building*, 21(3): 113-119.

Baumbach, Donna J. and Linda L. Miller. 2006. *Less is More: a Practical Guide to Weeding School Library Collection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Disher, Wayne. 2007. *Crash Course in Col-*

www.kci.go.kr

lection Development. Westport, Conn.: Libraries Unlimited.

Dubicki, Eleonora. 2008. "Weeding: Facing the Fears." *Collection Building,* 27(4): 132-135.

Martin, Jess A. and Steven B. Manch. 1971. "Library Weed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59(4): 599.

McGaw, Howard F. 1956. "Policies and Practices in Discarding." *Library Trends,* 4(3): 269-282.

Reed, Lawrence L. and Rodney Erickson. 1993. "Weeding: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 *Library Acquisitions. Practice and Theory,* 17(2): 175-181.

Reed-Scott, Jutta. 1985.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Weeding Program." *Collection Management,* 7(2): 59-67.

Slote, Stanley J. 1997. *Weeding Library Collections: Library Weeding Methods.* 4th ed.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Stueart, Robert D. 1985. "Weeding of Library Materials-politics and Policies." *Collection Management,* 7(2): 47-58.

〈웹페이지〉

ALA Library Fact Sheet Number 22. 2009. *The Nation's Largest Libraries: A Listing By Volume Held.* [online]. [cited 2009.9.15].

ACRL. 2004. Standards for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online]. [cited 2009.9.2]. 〈http://www.ala.org/ala/mgrps/divs/acrl/standards/standardslibraries.cfm〉.

Indiana Univeristy Libraries. 〈http://www.libraries.iub.edu/〉.

_____. 2003. "Collection Manager Manual: Retention, Transfer and Withdrawal Policy." [online]. [cited 2009.9.7]. 〈http://www.libraries.iub.edu/inrtanet/materials.php?materialType=procedure&materialsid=248〉.

Cornell University Libraries. 〈http://campusgw.library.cornell.edu〉.

_____. 2004a. "Selection Policy for Shelf Space Adjustment." [online]. [cited 2010.5.11]. 〈http://www.library.cornell.edu/colldev/shelfspace.html〉.

_____. 2004b. "Serials Cancellation and Withdrawal Policy." [online]. [cited 2010.5.11]. 〈http://www.library.cornell.edu/colldev/serialscancel.html〉.

_____. 2010. "Cornell University Library Policy on the Disposition of Library Materials." [online]. [cited 2010.5.15].

Liu, Ying. 2007. "Journal Deselection at a Medium-sized Academic Library." Chinese Librarianship: 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23. [online]. [cited 2009.7.12]. 〈http://www.iclc.us/cliej/cl23liu.html〉.

www.kci.go.kr

Rutgers University Libraries. 〈http://www.libraries.rutgers.edu〉.

_____. 2008. "LSM Weeding Project Procedure." [online]. [cited 2010.5.16].

University Library of Illinois. 〈http://www.library.illinois.edu〉.

_____. 2001a. "Retention Policies in the Digital Age." [online]. [cited 2010.5.11]. 〈http://www.library.illinois.edu/administration/collections/policies/Retention_Policies_in_the_Digital_Age.pdf〉.

_____. 2001b. "Guidelines for Cancellation of Unique Serials." [online]. [cited 2010. 5.11]. 〈http://www.library.illinois.edu/administration/collections/policies/Guidelines_for_Cancellation_of_Unique_Serials.pdf〉.

University Library of Michigan. 〈http://www.lib.umich.edu/libraries〉.

_____. 2007. "Retentions and Withdrawals: Guidelines for University Library." [online]. [cited 2010.5.11].

www.kci.go.kr